

내년 예산 326조... 성장·일자리 중점

올보다 5% 정도 증가... SOC 22조 2000억원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 제고·미래대비 투자' 안건을 논의,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는 복지'를 지향하고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지만,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 예산 326조원 안팎 전망... 5%대 증가=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24조~327조원, 올해 예산(309조1000억원)보다 14조9000억~17조9000억원(4.8~5.8%) 늘어나게 된다.

당초 중기계획에 없었던 둥칫돈 소요가 올해 들어 추가된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예컨대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 규모가 2조원 안팎으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지원도 1조5천억원 가량이나 된다.

현재로선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비춰 326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이어 2013년에도 총수입 증가율을 9% 내외, 총지출 증가율을 5%내외로 놓았던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성장·일자리·복지 선순환 구조 만든다=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맞춤형 복지도 중점을 뒀다"며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우선 복지 분야를 보면 우선 영세 사업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일하는 복지'를 상징하는 제도 변화로 꼽힌다. 저임금 근로자 120만명에게 정부와 근로자, 사용자가 3분의 1씩 4대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형태다. 정부가 사회보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연간 2300억 원이 들어간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일자리 예산도 늘린다. 청년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를 올해 54만개에서 내년 56만개로 확대한다.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에도 주력=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부문 투자를 확대한다. 4대강 이외의 SOC 투자규모를 올해 21조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고속도로와 호남선 등 고속철도 투자액도 2조

■ 2012년 재정지원 계획(안)			
구분	'11년	'12년(안)	증감(%)
SOC 및 환경기초시설투자	222,639	237,265	14,626(6.6)
▲4대강·엑스포 외 SOC	209,501	222,349	12,848(6.1)
-고속도로·고속철도	20,474	27,414	6,940(33.9)
-원주·강릉 철도건설	300	1,800	1,500(500.0)
▲환경기초시설 투자	13,138	14,916	1,778(13.5)
-수질개선사업(4대강외)	12,369	13,970	1,601(12.9)
-쓰레기처리시설	769	946	177(23.0)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46,466	49,867	3,401(7.3)
-정책자금	32,075	33,780	1,705(5.3)
-소규모 점포조직화 지원(나들가게)	247	357	110(44.5)
농협 구조개편 및 돈버는 농어업 육성	24,835	29,406	4,571(18.4)
-농협 구조개편 지원	-	1,500	1,500(순증)
-한미 FTA 대책	16,122	18,594	2,472(15.3)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 투자	93,698	102,510	8,812(9.4)
-기초연구 기반 확충	10,953	14,967	4,014(36.6)
-줄기세포 및 SW R&D 투자	2,567	3,109	542(21.1)
서비스산업 활성화	14,864	16,016	1,152(7.8)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	4,868	5,261	393(8.1)
-전통문화체험시설 등 관광산업 분야	9,317	9,787	470(5.0)
저탄소 녹색사회 및 녹색산업	37,848	40,360	2,512(6.6)
-신재생에너지보급	1,790	1,890	100(5.6)
-친환경 그린카 산업 육성	511	1,120	609(119.2)

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4% 확대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밸트에 대한 투자를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100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줄기 세포 연구 투자도 601억원에서 1004



태풍 '로키' 日 강타... 30명 인명피해

30명의 인명 피해를 냈고, 일본 주요 기업들은 오후 조업을 포기했다. 이날 하천 주변 주민을 중심으로 약 3700가구, 7800명에게 피난 지시, 약 51만2000가구, 121만명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다. 사진은 거대한 파도가 일본 미에현 기코시 우도노의 방파제를 넘어서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

"한미 FTA 보완책 없으면 비준 못해"

최인기 의원, 정부 무대책에 강력 질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요청한 재정 및 세제지원 확대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의원)와 비공개간담회에서 위원회가 요청한 한미 FTA 보완대책 10개 요구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간접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 과수 가운데 생산감소액이 가장 크므로 내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신규기금 설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는 현재도 비과세 수준이 충분히 높아 추가적인 확대 여부는 축산여건과 축산농가 규

모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였다.

폐업지원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상

기간 연장과 시행기간 연장,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밭작물 직불제 도입 역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직불제와 별도로

밭농업 직불제는 도입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농업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문제는 농업 생산과 무관한 판매장과 식당 등에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면 유통별 전기료금제도 운용 취지에 맞지 않아 반대했다.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높여달라는

요청도 국제기준과 재정여건 등을 고

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

며, 면세유 일률 10년 연장은 우선 3

년6개월 연장되어 시행 성과가 있으 면 지속해서 연장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내년 지원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네 차례 진행된 여·야·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어업피해 대책에 난색을 표하

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는 불가

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가진 농림수산식품위기 전제회의에서

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의 사업구조개

편 자본지원 계획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문화예회관 '공연 발전소' 거듭난다

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실험극장·연습실 만들어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공연 발전소'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21일, 부족한 공연장 확보와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광주문화예회관 구 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 소공연장 규모의 실험극장 등을 만들어 공연문화의 폐

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구 시립미술관 별관 2층 제1전시실을 연극·무용·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홍행기자 redplane@

4대강 16개 보 24일부터 순차 개방

이달 말부터 4대강이 순차적으로

지역민들에게 개방된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달 24일 세종보 개방행사를 시작으로 영산강 등 전국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 건설된 16개 보(洑)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영산강의 경우 죽산보는 다음달 8

일, 22일에는 승촌보에서 '4대강 새물결 맞이'라는 주제로 개방행사가 펼쳐진다. 국토부는 또 4대강 경관 명소인 '4대강 36경(景)'도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4대강 공식 개방행사에 앞서 영산강을 다음달 1일부터 임시 개방해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4대강 이용 도우미 포털(www.riverguide.go.kr)'을 개설하고, 4대강 개방일정과 행사 일정,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할 '4대강' 콜센터(1577-4359)도 21일부터 운영한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국내 유통

1400정 반입 적발
관세청, 관련자 추적

영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이 국내 에서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인육캡슐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정의 인육캡슐이 국내로 반입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사산아 또는 영아 시신을 건조한 후 캡슐 분말로 만들어 자양강장제인 것처럼 밀반입해 한 봉지(100캡슐)에 약 80만 원에 유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

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국 현지에서 구입해 확보한 캡슐을 중양관 세분석소·국립과학수사연 구소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사람의 혈액과 99.7%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후 지난 8월 8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특급우편물로 반입된 인육캡슐 758정, 651정 등 총 1409정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조선족을 조사한 데 이어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밀반입 사례는 국내 거주 중국교포의 자가소비 목적으로 중국에서 친인척이 보내준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79,000 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29,000 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원~
상해,항주,황상 4일 589,000 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679,000 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19,000 원~

예/약/상/담 350-6226

광 천 점 267-8587

두 암 점 652-2974

상 무 점 574-1300

수 완 점 227-8255

조선대점 382-5353

진 월 점 233-2627

총 장 점 222-9796

하 남 점 954-9700